



# 쌀 소비 감소와 쌀사어 저망 관심사

## 쌀 소비감소로 재고량 걱정수준 상회, 재정부담 커질 듯 2004년이 전환점, 차기협상 따라 가격하락·재배면적 줄 수도

### 쌀 소비량 감소

우리의 주곡인 쌀 소비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 5백40만톤에서 2000년에는 5백13만 톤으로 5.1% 정도 줄어들었다. 총 소비량 중 식량 및 가공용 소비량은 동일기간 동안 5백9만톤에서 4백65만 톤으로 8.7% 줄어든 반면 종자 및 감모량은 다소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3kg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2.5kg씩 감소하여 감소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은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육류와 유제품 등의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공용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다. 재고미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낮은 가

격으로 방출한 결과 1995년까지 가공용 쌀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수급조절을 위해 방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가공용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쌀 가공제품의 원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밀가루 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

쌀 소비 동향(양곡년도 기준)

양곡년도	1980	1990	1995	1999	2000 (잠정)	연평균 변화율(%)		
						80/90	90/95	95/100
총소비량(천톤)	5,402	5,444	5,407	5,278	5,126	0.1	-0.1	-1.1
식량·가공용	5,093	5,207	5,005	4,715	4,652	0.2	-0.8	-1.5
종자·감모등	309	237	402	563	474	-2.6	11.1	3.3
1인당소비량(kg)	133.6	121.5	111.0	100.6	98.4	-0.9	-1.8	-2.4
식용	132.4	119.6	106.5	96.9	94.8	-1.0	-2.3	-2.3
가공용	1.2	1.9	4.5	3.7	3.6	4.7	18.8	-4.4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다. 1993년에 가공용 정부미 방출가격이 80kg당 2만5천원에서 1999년에는 8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수준 증가, 식품 소비 패턴의 서구화 영향으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19세 계층을 제외하고는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쌀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젊은 계층이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경우 쌀 소비 감소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1979~98년 동안의 소비 감소를 1.60%를 적용할 경우 2015년의 1인당 소비량은 75.4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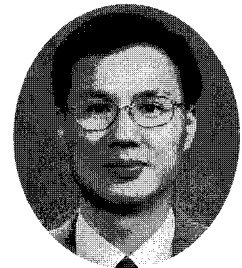
쌀 소비량 감소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과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쌀 소비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및 가공수요 개발을 추진해온 일본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95.1kg에서 1998년에는 65.2kg으로 줄어들었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134.5kg에서 1997년에는 58.4kg으로 소비량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 공급 능력 향상

최근 들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단수(單收)가 늘어나고 있다. 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쌀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쌀 공급능력이 제고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쌀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고 휴경이 늘어나 벼 재배면적이 줄어 들었다. 벼 재배면적은 1990년 1백24만4천ha에서 1996년에는 1백5만2천ha로 줄어들었다. 재배면적이 줄어든 결과 재고율이 떨어지면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쌀 80kg당 농가판매가격은 1995년 11만7천4백68원에서 1996년에는 13만4천1백58원으로 14.2%나 상승하였고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었다. 쌀가격 상승, 대체작목 가격의 불안정 및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벼 재배면적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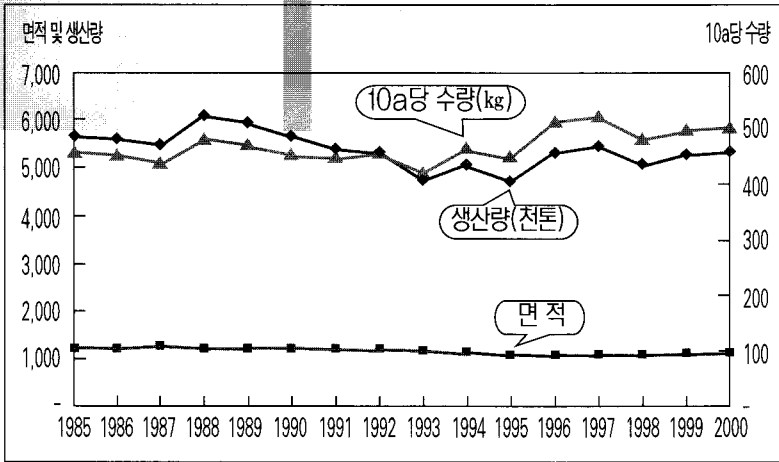
이 연평균 5천5백ha 증가하여 2000년에는 1백7만2천ha에 이르렀다. 특히 품질이 떨어지는 발벼 재배면적도 1995년 5백ha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만7천ha에 이르고 있다. 평년단수는 1980~84년 기간의 4백32kg에서 1996~2000년 기간에는 5백kg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1995년에 다산벼와 남천벼라는 초다수성 품종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재배면적 중 65% 이상에 단수 5백kg을 넘는 양질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단수의 안정화를 위한 냉해 및 한해에 대비한 품종 선택, 작업시기, 시비법 등 재배기술 보급도 단수 증대의 중요한 요인들이다. 재배면적과 단



## 개방화 시대의 농산업

수 증가로 인해 쌀 생산량은 1995년 4백69만5천톤에서 2000년에는 5백29만1천톤으로 늘어났다.

### 생산량 및 면적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5~2000년 기간 중 최소 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한 쌀 수입량이 기준년도(1988~90년 평균) 국내소비량의 1%에서 2%로 연간

0.25% 포인트씩 증량되었으나 2001~04년 기간에는 2%에서 4%로 연간 0.5% 포인트씩 증량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된 쌀 전량을 인수·보관 후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하여 공급하고 있

다. 1999년도에 가공용으로 소비된 쌀 17만4천톤 중 정부양곡은 42.5%인 7만4천톤으로 최근의 MMA 물량은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 MMA물량 도입 계획

	1995	1996	1997	1998	2000	2004
MMA비율(%)	1	1.25	1.5	1.75	2.0	4.0
MMA물량(천톤, 정곡)	51	64	77	90	103	205

자료 : 양정자료, 농림부 식량생산국, 2000.

### 재고 누적

미곡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1996년산 이후 계속된 풍작과 쌀 수입 증가 등으로 1999년부터 재고량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양곡년도말 적정재고율(FAO 권장기준)은 소비량의 16%수준이나 2000년 10월말 추정재고는 7백30만석(소비량의 21%)이며, 2000년산 생산량과 2001 양곡연도 소비량을 감안하면 2001년 10월말 재고는 약 1천만석(소비량의 30%)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소 비용이 소요되지만 적정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초식량인 쌀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커진다. 쌀 1백만석을 재고로 가지고 있을 경우 약 3백억원의 금융비용과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신곡의 고미화에 따른 약 2백억원의 가치 손실이 발생한다.

재고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면 적정 수준의 계절진폭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유통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밑돌았던 1997년과 1998년의 계절진폭은 각각 13.4%와 7.9%를 기록하였다. 재고율이 20%를 상회하면서 1999년의 계절진폭은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유통업자는 수확기때 원료곡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보관 후 가공·판매하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원료곡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비용과 보관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계절진폭이 있어야 한다. 계절진폭 수준이 낮아 적정이윤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민간유통업체는 수확기때 원료곡 매입을 최소화하여 산지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쌀산업 전망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재고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소비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쌀 가격 하락 현상은 당분간 지



속될 가능성이 있다. 쌀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농가의 재배의욕이 저하되어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배면적은 1990년대 초반처럼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일과 시설채소 재배면적의 확대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입량도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폭이 쌀 가격하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쌀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면적은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과일이나 시설채소의 소득이 기상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쌀 농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도 쌀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

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재고량이 늘어나고 가격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쌀 산업은 2004년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일정물량만 수입하고 2005년부터의 쌀 수입방식은 2004년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기 협상 쟁점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쌀 수입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차기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은 관세의 대폭 삭감·시장접근 물량의 증량 및 관리방법 개선·특별 긴급관세의 폐지 등 시장개방분야, 허용보조 재검토·국내 총보조 감축 폭 및 방식 등 국내보조와 수출보조 분야로 나뉜다.

농산물 수입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는 쌀 수입량이 늘어나 국내산 쌀 가격이 하락하고 쌀 재배면적도 상당 수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농약정보**